

“굿바이 이종범 ... 영원한 야구천재, 타이거즈 심장이여”

‘바람의 아들’ 바람처럼 떠나다



지난해 7월 2일 광주 무등야구장. KIA 타이거즈와 한화 이글스의 경기에서 2회말 KIA 이종범이 2루타를 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바람의 아들’ 이종범이 바람같이 떠났다. 한국프로야구의 전설 KIA 외야수 이종범이 지난 31일 전격 은퇴를 선언했다.

갑작스런 은퇴였다. 이종범은 앞선 2008년 0.174라는 타율을 기록하는데 그치며 은퇴위기를 맞는 등 여러차례 은퇴론에 시달려왔다. 하지만 2009년 팀의 최고참으로 V10의 중심에 서는 등 매년 은퇴론을 잠재우고 그라운드를 곳곳이 지켜왔던 이종범이다.

지난 겨울에도 이종범은 자신의 20번째 무대를 위한 치열한 시간을 보냈다. 후배들과 함께 마무리 훈련·스프링캠프를 소화했고 머리를 짧게 자르고 나선 시범경기에서는 7경기에 나와 12타수 4안타, 0.333의 타율로 1타점을 기록했다.

그러나 개막을 불과 1주일 앞둔 시점에서 이종범은 은퇴를 결정했다.

이종범은 지난 30일 이순철 수석코치의 면담에서 “개막전 1군 엔트리 등록이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리고 한화와의 홈경기가 있었던 31일 선동열 감독과의 자리에서 “실력으로 봐서 후배들과의 경쟁이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전력의 선수”로 평가를 받은 뒤 은퇴를 결심했다.

“때가 되면 미련없이 떠나겠다”고 얘기해왔던 이종범은 자신의 애칭처럼 바람같이 떠났다. 급박했던 은퇴 결정과 발표였기에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 결정된 것은 없다.

이종범은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시즌 앞두고 깜짝 은퇴
 딸·아들 뒷바라지
 서울로 이사할 듯
 KIA 코치 등 진로 결정 못해

인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 며칠 생각을 한 뒤 향후 거취에 대해 발표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라운드를 떠난 이종범은 당분간 아빠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3월 바이올린을 전공하는 딸 가현양이 예원중학교에 입학하면서 서울생활을 하고 있는 만큼 서울로 집을 옮길 계획이다. 무등중 야구부로 뛰고 있는 아들 정후군도 전학을 고려하고 있다.

이종범은 1일 전화통화에서 “아들이 왜 야구를 그만 뒀냐고 서운해 했는데 이런저런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더니 ‘잘했어요’라면서 위로해 주더라. 딸아도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고, 서울에 집을 알아보고 있다. 우선은 아이들을 신경쓰겠다”고 말했다.

또 “야구를 하고 싶었다. 준비를 잘했고 컨디션도 좋았다. 결정은 했지만 밤새 많은 생각을 했고 마음이 좋지는 않다. 팬들의 많은 응원과 사랑을 받았다. 감사하고 미안하다”며 “이곳에 있으면 머리가 복잡할 것 같아서 정리 하는 시간을 갖겠다. 하지만 언젠가는 그라운드로 돌아올 것이다”고 복잡한 심경을 토로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이종범 (1970년 8월15일생·우투우타)
 통산 타율 0.297(6060타수 1797안타) 홈런 194, 타점 730, 도루 510

시즌최다기록	시즌 최다안타(196개), 시즌 최다타점(145개), 시즌 최다도루(84개·이상 1994년), 시즌 최다 고의볼넷(30개·1997년), 시즌 최다 2루타(43개·2003년)
타이를 출타	타점1위(1994), 안타1위(1994), 득점1위(1993, 1994, 1996, 1997, 2004), 도루1위(1994, 1996, 1997, 2003), 홈루1위(1994)
수상기록	정규리그MVP(1994), 한국시리즈MVP 2회(1993, 1997), 올스타전 MVP(2003), 골든글러브 6회/유격수 4회(1993, 1994, 1996, 1997), 외야수 2회(2002, 2003)
최고기록	20홈런·20도루(33세 28일), 포스트시즌 출전(41세 1개월 27일), 국내타자 최고령 홈런(40세 11개월 21일)

1994년 3할9푼3리 시즌 MVP



바람이 걸려온길

2006년 WBC 일본전 결승 2루타



2009년 통산 500도루 성공



2009년 KIA 타이거즈 'V10'



“투수는 선동열·타자는 이승엽·야구는 이종범”

전설이 떠난 무등야구장
 후배 선수·팬들 가슴 ‘뻥’

전설이 떠난 무등경기장 야구장에는 진한 아쉬움이 가득했다.

은퇴를 결심한 지난 31일, KIA 이종범은 코칭스태프와의 면담이 끝난 후 간단히 짐을 챙겨 경기장을 떠났다. 이때까지도 선수들은 말쑥한 은퇴를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다. 선수단은 경기가 끝나고 난 한참 뒤에야 은퇴 소식을 접했다.

이종범이 떠난 이후 첫 경기가 치러진 1일은 마침 만우절이었다.

전날까지 같이 운동을 했던 든든한 베테랑의 갑작스런 공백에 선수들이 오히려 “만우절 거짓말 아니냐, 정말 선배님 그만 두신거냐?”고 취재진에게 확인을 하는 진풍경도 벌어졌다.

“생각을 하신다고 한 것 아니냐,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지 않냐”며 조심스런 반응을 보이던 선수들은 이종범이 진짜 그라운드를 떠난다는 얘기에 착잡한 모습이었다.

누구보다 오랜 시간 호흡을 맞춰왔던 야수 최고참 김상훈은 “가슴 한쪽이 뻥 뚫린 것 같다”며 “후배들은 이 마음을 잘 모를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나의 심정이 어땠는지 알게 될 것이다”고 존경하는 선배이자 믿고 따르던 형님을 떠나보내는 심경을 밝혔다.

이종범과 1993년 입단동기로 타이거즈 영육의 역사에 함께 했던 LG 이대진은 자신의 트위터에 안타까운 마음을 적었다.

이대진은 “기분이 정말 쓸쓸하다. 시즌을 앞에 두고... 한국 나이로 51세인 제이미 오이어가 콜로라도 2선발로 확정됐다는 소식을 접했는데,

아직 충분히 할 수 있는데, 형님은 언제나 종범님으로 기억됩니다. 제 마음 속에서도 언제나 신이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라는 글을 남겨 타이거즈 팬들의 가슴을 울렸다.

1일 시범경기 관람에 나선 KIA 팬들도 응원석에 이종범의 유니폼을 걸어놓고 이종범의 응원가를 외치는 등 프로야구를 꿈꿔왔던 ‘영웅’의 퇴장을 아쉬워했다.

한국 최고의 유격수, 외야수 골든글러브 수상자, 시즌 타율 0.393, 타격왕, 도루왕, 한일통산 2000안타, 투수를 제외한 전 포지션을 소화한 전제 야구인, MVP 그리고 타이거즈의 살아있는 역사 ‘종범신’.

“투수는 선동열, 타자는 이승엽, 야구는 이종범”으로 대변됐던 프로야구 최고의 스타 이종범이 그렇게 거짓말 같이 그라운드를 떠났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바람을 떠나보낸 태양 ... KIA 선동열 감독

“성급한 은퇴 발표 섭섭... 지도자로 성공하기를”



“제 2의 인생이 있는 만큼 야구생각을 하면서 마무리를 잘하면 좋겠다.” KIA 타이거즈 선동열 감독이 1일 한화와의 시범경기에서 앞서 이종범의 은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지난 31일 면담 자리에서 이종범의 은퇴 의사를 확인했던 선 감독은 한 인터넷 매체를 통해 먼저 은퇴 발표가 난 것에 대해 아쉬운 마음을 표현했다.

선 감독은 “어제 (이)종범이가 찾아와서 물어보기에 엔트리 들기 쉽지 않겠다는 말을 했더니, 은퇴를 하겠다고 밝혔다. 구단하고 좋은 방향으로 정리하고 적을 두지 말라고 얘기를 했다. 구단하고도

자리를 해서 은퇴 논의가 이뤄졌는데 급하게 얘기가 나왔다”며 “팀과 후배도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감독을 떠나서 야구 선배로서 안타까움이 있다”고 말했다.

논란이 된 ‘타이핑’에 대한 설명도 했다. 선 감독은 “선수 입장에서 섭섭하고 아쉬움이 남을 것이다. 야구만 해왔던 사람이고, 나도 웃을 벗어봐서 잘 안다. 하지만 안 타까움은 순간이다. 또 본인 입장에서 새 감독이 오면서 처음부터 왜 정리를 하지 않았느냐는 섭섭함을 가질 수도 있지만 실력을 검증해보지도 않고 기회도 주지 않고 그러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전지훈은 방향으로 정리하고 적을 두지 말라고 얘기를 했다. 구단하고도

이종범의 일방적인 발표에 대해 섭섭한 마음을 밝히면서도 야구 선배로서의 애뜻한 마음이 전했다.

선 감독은 “이종범 은퇴문제는 팀에 들어올 때부터 생각하고 있던 대목이다. (최희섭 소동 등) 일들이 있었지만 시즌 중에 그런 것보다 시즌 전에 이렇게 터지는 게 오히려 좋다고 생각한다”며 “나도 은퇴할 때 정말 많은 고민을 했다. 왜 더할 수 있는데 그만 두었느냐는 생각도 할 수 있다. 제2의 인생이 있다. 야구쪽으로 생각하면 시간이 더 길다. 프로야구에서 여러 활동을 했고, 스타로 살아온 만큼 끝 마무리 잘해서 지도자로 더 각광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KIA, 한화와 6-6 무승부 시범경기 4승5패3무

KIA 타이거즈가 4승5패3무로 시범경기 일정을 마쳤다.

KIA는 1일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열린 한화와의 시범경기 최종전에서 6-6으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베테랑 서재응과 괴물 류현진이 맞붙었던 전날 승부에서도 연장 10회까지 0-0으로 접수를 내지 못했던 양팀은 이를 연속 무승부 힘겨루기를 했다.

한화와의 마지막 2연전에서 모두 무승부를 기록한 KIA는 4승5패3무, 공동 5위로 시범경기를 마감했다.

선동열 감독은 “선수들에게 경기장에서 밝아져야 한다. 즐겨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는데 찬스와 작전상황에서 여전히 경직된 모습이다. 투수들도 초구부터 적극적으로 공략하려고 강조했는데 아직도 부족하다”고 2012시즌 시범경기 총평을 했다.

선 감독은 코칭스태프와의 미팅을 통해 2일 1군 엔트리를 확정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